

# 광주시, 인공지능 활용 의료시대 연다

### ‘K-Health AI서비스’ 공모 선정...국비 298억 확보 전국 첫 도시 전역 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대

광주시가 인공지능(AI)과 결합한 미래 의료의 선봉이다.

광주시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공모 사업(이하 K-Health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5년까지 4년간 국비 2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광주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와 협력해 K-Health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 전역 의료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시민에게 AI와 융합한 선진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AI 기반 병원 응급의료 통합체계를 마련해 시민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 5개 보건소와 50여 개소 병의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공공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병의원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AI 진단서비스를 제공해 AI 융합의료서비스 기틀을 다져왔다.

또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헬스케어실증센터를 개소해 시설방문자들에게 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료연’을 출시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병의원 건강검진·처방기록 등 자신의 의료정보를 열람·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AI 공공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고도화한 이번 K-Health 사업은 도시 전

역 병의원(430개소 이상)의 의료데이터를 한데 모으는 클라우드 연계를 통해 한층 더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시민에게 AI 진단지원서비스, AI 애플리케이션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정확한 질병 진단 서비스와 개인별 건강관리 해결책을 처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의 상태와 병원 현황을 AI로 분석해 신속한 이송

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 참여 병의원이 확대(2021년 시범사업 50개소→430개소 이상) 됨에 따라 시민의료연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앱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방문한 병의원의 진료·의료영상·건강정보 등 의료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관리 상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민들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체계까지 별도로 마련해 자가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시민 제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인 동의를 받은 의료데이터

는 비식별화 등의 절차를 거쳐 접근이 제한된 오픈랩(Open Lab)을 통해 기업·연구소 등에 제공된다.

시는 지역의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와 의료데이터 선순환에 따른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태조 인공지능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단일도시를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으로 시민·병의원·기업에서 선진 의료 서비스와 데이터 활용 체계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의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사직공원에 펼쳐진 미디어아트 빛고을 광주의 도시 정체성을 담은 유네스코미디어아트 창의벨트 3권역의 일부인 남구 사직공원 전망타워에 추억과 동심을 모티브로 한 도심형 미디어아트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3월 1·2권역(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금남공원과 광주천 광주교)을 선보인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사업’은 4권역인 양림동 일원과 5권역인 송정역의 완성만을 남겨두고 있다.

/김애리 기자

# 姜시장 “역사 혁명했던 광주, 삶을 혁명하는 도시로” 金지사 “하나된 광복 마음으로 더 위대한 전남 실현”

### 광주·전남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성료

광주·전남도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거행했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극장에서 보훈단체장 및 회원, 광복회원, 수상자 가족, 강기정 광주시장,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 정무장 시의회 의장, 이정선 시교육감, 윤영덕·이윤빈·강은미 국회의원, 5개 구청장 등 각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했다.

강기정 시장은 경축사에서 “광주는 단 한 번도 시대의 요구를 회피하지 않았으나 유독 당위와 의무를 앞세워 개인

의 행복 추구라는 기본권도 때로는 억누르면서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면서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는 이제 내 삶을 혁명하는 기회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국내 최대 항일 독립운동 전진기지였던 광주를 수도권 집중으로부터 해방하는 ‘균형발전 기회도시 광주’로 우뚝 세우겠다”며 “김구 선생께서 이곳 광주극장에서 말씀하신 ‘삼균주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더욱 필요한 정신이다. 그 뜻에 따라, 대한민국은 어디에서나 정치

·경제·교육의 균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도 이날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행사장에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애국지사 유가족, 보훈단체 및 주요 기관·단체 대표 등 200여명만 참석했다.

경축식은 ‘광복의 빛으로, 새로운 전남을 밝혀 나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전남지역 독립운동가 고 김재용

남(애족장)과 고 문영신 남(대통령표창)이 독립유공자로 새롭게 추서돼 유가족에게 각각 애족장과 대통령표창이 수여됐다. 전남이 의향의 고장임을 확인하면서 지역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영록 지사는 경축사를 통해 “선열들이 되찾아 주신 빛은 77년의 세월을 관통해 우리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왔다”며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고, 하나가 됐던 광복의 마음으로 ‘더 위대한 전남’을 향해 힘차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전남항일독립운동기념탑 참배와 나라꽃 무궁화 묘목 배부 행사, 전남 여성독립운동가 및 태극기 변천사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나라사랑과 광복의 의미를 더했다.

/김재정·박선강기자

# 강진청자, 스타벅스와 손잡고 세계로

### 3년 협의 광복절 기념 청자 티컵·트레이 등 출시 스타벅스 사상 최초 지역과 협업 상생 상품 주목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이 스타벅스 코리아와 함께 광복 77주년을 맞아 제작한 강진청자 상품을 15일부터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출시했다.

〈사진〉 강진군은 고려시대에 최고 품질의 청자를 제작한 청자요지가 200여 개소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려청자 생산지다. 강진군은 2020년 말부터 고려청자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스타벅스에 제안했고 지속적인 협의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상품으로 결실을 맺었다.

강진청자 상품은 청자 티컵과 청자 트레이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스타벅스에서 고려청자의 디자인을 반영해 강진청자와 어울리도록 제작한 스테인리스 텀블러도 함께 선보인다. 청자 티컵과 텀블러는 각각 3만3천원에, 청자 트레이는 2만8천원에 판매된다.

고려청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맑고 투명한 유약이다. 강진청자 상품 역시 유약의 두께에 따라 색이 짙고 열어지는 고려청자의 특징을 잘 살려냈으며 컵 뚜껑과 트레이이 손잡이는 금으로 장식했다. 특히 청자 티컵은 스타벅스 로고인 사이렌(Siren)과 고려청자의 연꽃 모티프의 조화가 아름답다.

강진청자 상품은 스타벅스가 특정 지역과 협업해 출시하는 첫 지역 상생 상품이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과 스타벅스



앱 gift 배송하기 채널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번 협업을 통해 고려청자 문화유산의 가치는 물론, 현재 강진청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이 널리 알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스타벅스와의 협업은 강진군의 지역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한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강진군의 문화유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청자 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2009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래로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에 맞춰 무궁화,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한 상품을 소개해 왔다. 이번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강진청자 상품의 수익금 중 일부는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으로 조성해 우리 문화재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진=정영록기자

# 광주소방, 의료시설 입주 건물 소방점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5일 “의료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해 9월까지 소방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이천 스크린골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인근 의료시설에 있던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숨지고 42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내 의료시설 등의 화재 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주지역 의료시설 입주 건축물 136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포링클러 설비(간이 스포링클러 설비 포함)가 설치되지 않거나 필로티 구조의 의료시설 입주 건축물을 중점으로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 산후조리원은 현장을 방문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입원환자 피난방법과 피난시설 사용법 등 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의료기관 대표자와 화재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해 소방관서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선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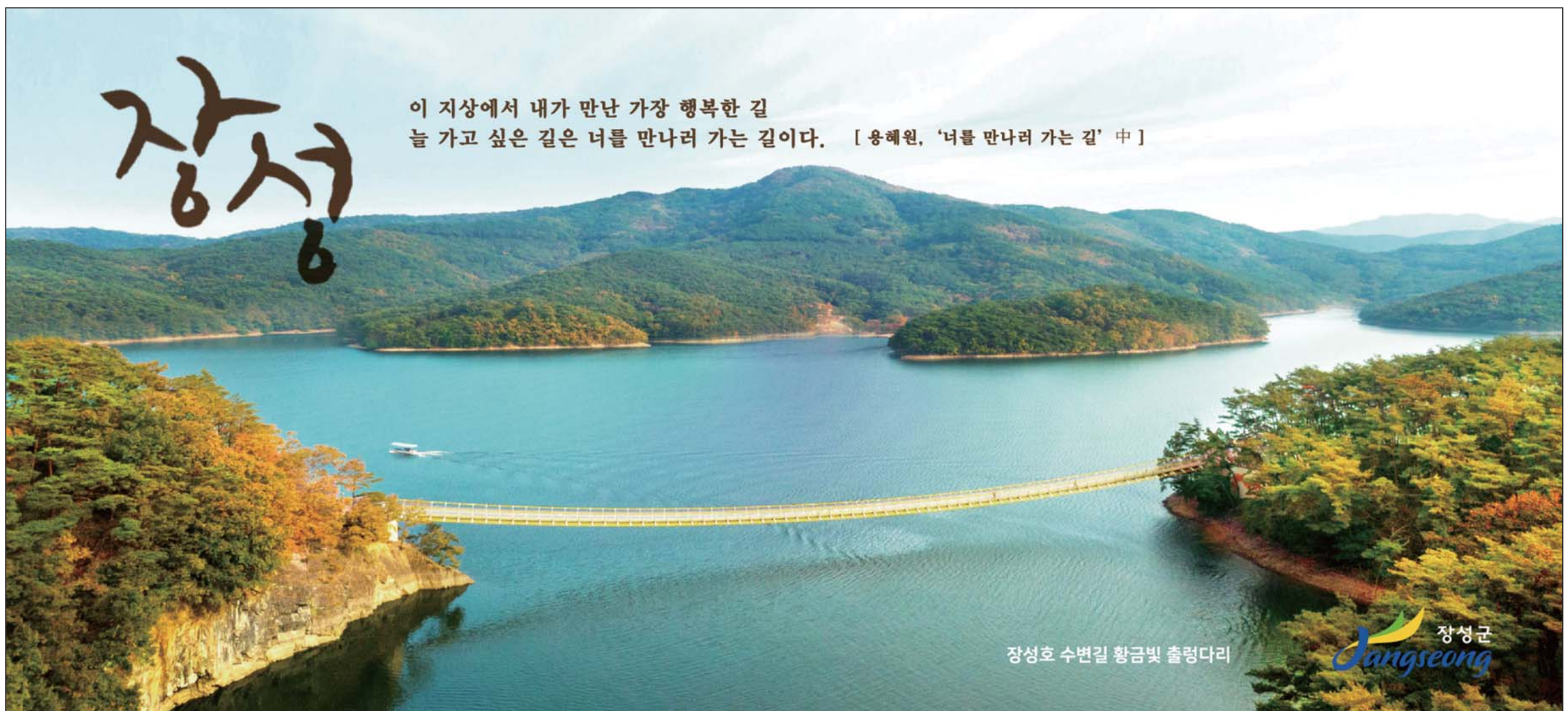
# “이달 말까지 주민세 납부하세요”

광주시는 15일 “올해 7월1일 기준 광주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개인분)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박선강기자



이 지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 용혜원, '너를 만나러 가는 길' 中 ]

장성호 수변길 황금빛 출렁다리

